



## 2011 프로야구 MVP 윤석민 인터뷰

# “KIA 버리고 미국 갈 생각 없다”

“MVP 먹었어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1 한국야구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MVP)와 최우수 신인선수 시상식에서 MVP를 받은 윤석민(KIA)이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내 역할 다한 뒤 해외 진출”

“우리 모두가 MVP다” 예상보다 싱거운 결과였다. 오승환의 후보 사퇴 논란속에 가열됐던 2011 최우수선수 경쟁에서 KIA 에이스 윤석민이 91표중 62표를 획득하면서 꿈에 그리던 MVP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삼성의 세이브왕 오승환이 19표를 받았고, 홈런왕 삼성 최형우와 타격왕 롯데 이대호가 각각 8표와 2표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윤석민이 MVP가 됐다. 윤석민은 “어머니·아버지, 지금은 팀에 안 계시지만 조범현 감독께 감사 드리고 이강철·조규제 코치님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배터리로 호흡을 맞춰준 차일목·김상훈 선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이고 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상을 받은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 윤석민은 “작년에 성적에 너무 안 좋았고 안 좋은 일도 해도 야구가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안 좋았던 생각이 나고 악몽 때문에 속상해 하시던 부모님 생각이 났다.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쳤다”고 설명했다. 윤석민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승환 선배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와전된 것 같다. 끝까지 경쟁을 해준 경쟁자들에게 고맙다. 올해는 갑자기 더 좋은 성적이 나왔다. 다른 경쟁자들 모두 훌륭했다. 우리 모두가 MVP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이전트 계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미국 진출에 관한 입장이 밝았다. 윤석민은 “해외 진출은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이다. 그중 미국이 야구의 최고무대라서 미국을 생각하고 있다. 올 시즌 전부터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많은 에이전트의 연락을 받았다. 나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고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

한 보라스팀과 손을 잡게 됐다”면서도 “KIA를 버리고 갈 생각은 없다. 팀에 대한 애정이 많다. 내 꿈도 있는 것이고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팀과 잘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 뒤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7년차 윤석민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단의 동의를 얻어 포스팅 시스템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구단에서는 내년 시즌 윤석민의 해외진출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내년 시즌이 끝난 후 구단의 동의를 얻거나 2년 뒤 FA 자격을 취득해야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 윤석민은 “20승을 목표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니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 좋은 자리에 팀에서 나 혼자 와있다는 게 어렵다. 올 시즌 준플레이오프 탈락도 아쉬웠다”며 “새로 오신 선동열 감독과 똑같이 4관왕 했는데 더 강하고 좋은 투수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신인왕 중고신인 삼성 배영섭

### 윤석민 투수 4개부문 수상

20년만의 ‘투수 4관왕’ 윤석민이 2011 시즌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석민이 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최우수 신인선수 선정 및 부문별 시상식에서 MVP에 등극했다. 2011년 최우수신인선수의 영예는 전체 91표중 65표를 획득한 삼성 외야수 배영섭에게 돌아갔다. 3년차 중고신인인 배영섭은 올 시즌 99경기에 출전해 0.294의 타율로 24타점 51득점 2홈런을 기록했다. 도루는 33개로 전체 3위에 오르며 삼성의 기동력을 책임졌다. 시즌 중 왼쪽 새끼 손가락 인대부상을 당했던 배영섭은 왼쪽 손등 골절상의 악몽을 딛고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르며 2차전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배영섭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과 가족들 삼성라이온즈 감독 코치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문별 시상식도 진행됐다. 투수부문에서는 6개의 트로피 중 4개를 KIA 윤석민이 싹쓸이했다. 윤석민은 올 시즌 2.45의 방어율로 17승5패1세이브를 기록하며 다승·방어율왕을 차지했다. 승률부문에서도 0.773로 1위에 오른 윤석민은 탈삼진은 178개를 뽑아내며 4개 부문 1위를 독차지했다. 세이브상은 54경기에 등판해 47차례 경기를 마무리 한 ‘끝판 대장’ 삼성 오승환에게 돌아갔다. SK의 좌완 고무팔 정우람은 홀드상(25홀드)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타격 7관왕에 빛나는 롯데 이대호는 타율(0.357), 최다안타(176개), 홈런왕(0.433) 트로피를 차지했다. 30개의 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른 삼성 최형우는 타점(118개)과 장타율(0.617)상까지 차지했다. 롯데 전준우는 97득점으로 득점상을 받았고, 46개의 도루를 성공시킨 두산 오재원은 도루왕에 등극했다. 우수심판상의 영예는 전일수 심판위원이 안았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인왕 삼성 배영섭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오거리 | 임선빈직 | 하남

임동오거리 | 신안사거리 | 하남

한국카랜드 | 임동오거리 | 신안사거리 | 하남

임동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번길)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프루세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얼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